

韓·中 兩國의 傳統社會에 있어서의 醫員의 社會的 地位

李 善 我

韓國韓醫學研究院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사업 관리본부 연구원

Abstract

韓中兩國傳統社會裏醫員的社會地位

李 善 我

韓國韓醫學研究院 韓醫學 知識情報資源 數字化事業 管理本部 研究員

這篇文章是關於韓中兩國傳統社會裏醫員的社會地位的論文。在這篇文章通過韓中兩國社會的區別點來分析韓中兩國傳統社會醫員的地位。結論就是韓國傳統社會比中國傳統社會還閉鎖，而韓國傳統社會醫員的社會的地位比中國還低一些。

核心語 : 殷壽龍, 黃度淵, 黃泌秀, 方藥合編

I. 서론

韓中 兩國의 醫學史를 비록 단편적으로나마 연구하는 과정에서, 韓國의 傳統期 社會에 있어서의 醫員의 社會的 地位가 같은 傳統期의 中國에 있어서의 醫員의 地位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韓國에 있어서는 醫員의 社會的 地位가 극히 낮았는데, 다시 말하면 그들 醫員들에 대한 社會的 偏見이 심하였는데, 이에 비하여 中國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II. 비교의 대상

우선 비교의 대상을 韓國의 경우 19세기 말에 고창지방에서 다년간 醫員생활을 하여 名醫로서 이름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저지 않은 著述 즉, 『呑吐集』 등을 남긴 殷壽龍이라는 인물과, 위 殷壽龍보다는 약간 앞선 시기에 수도 서울에서 역시 名醫로서 활약하였고 특히 『醫方活套』와 『方藥合編』이라는 유명한 저술을 남긴 黃度淵을 소개하려고 한다.

한편, 中國의 경우는 1630년에 간행된 『崇禎松江府志』의 「藝術」편에 나오는 醫員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醫員 16명이 수록되어 있다.

Ⅲ. 소개할 내용

醫員 내지 醫業에 대한 社會的 偏見이 심하였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났던 사실 하나가, 그들 집안의 族譜에서 그들의 그러한 직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1. 1917년에 간행된 『幸州殷氏世譜』에서의 醫員 殷壽龍에 대한 기록

殷壽龍은 1818년(純祖 18)에 全北 高敞에서 태어나 1897년(光武 1)에 사망한 인물로, 本貫은 幸州이며, 字는 德中이다. 그의 집안은 전통적으로 醫師業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그가 남긴 『呑吐集』에 실려있는 『經驗方』의 서문에서 殷壽龍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經驗方이란 撰者가 多年間의 治療過程에서 자신이 자기나름대로의 진찰을 바탕으로 자기나름대로의 처방을 써서 아주 탁월한 효과를 거둔 예를 11개의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殷壽龍은 자신이 名醫로서 업적을 남겼고 동시에 醫書도 남겼지만 그에 관한 이야기는 高敞의 地理, 歷史를 다루는 邑誌를 포함하여 어느 문헌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심지어 그의 집안의 族譜에서조차 그가 醫員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1917년에 刊行된 『幸州殷氏族譜』에 의하면 그는 “戊寅生이고 字는 德中이고, 濟州道 ‘大靜郡守’를 지냈으며 丁酉년에 死亡”하였다는 것, 이것이 그의 履歷에 관한 사항으로는 전부이다.

한편 殷壽龍 자신이 쓴 序文에 의하면 殷壽龍의 先代들도 대대로 醫業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그러나 위 族譜에서는 그의 父나 祖父나 또는 그 윗대의 어느 누구도 醫員職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경우에도 殷壽

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각각 官職을 지낸 것으로 밝혀져 있다. 예컨대, 그의 父 文珪의 이름 밑에는 “贈通政大夫禮曹參議”라는 官職名이, 祖父 慶擘의 이름 아래에는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이라는 官職名이, 그리고 曾祖父 濟東의 이름 아래에는 “贈嘉善大夫漢城府左尹兼五衛都摠府副總管”이라고 적혀 있을 뿐이다. 요컨대, 族譜記事에 의한다면 殷壽龍이 醫員이었다는 사실이나 또는 그의 先代가 대대로 醫員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朝鮮時代의 전통적인 職業觀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쉽게 풀릴 수 있다. 다시말하면 조선시대에는 적어도 선비집안에서는 실지로는 醫員 노릇을 하였어도 그 사실을 族譜에 밝히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른바 中人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族譜에서 그러한 사실을 전혀 거러김없이 밝혔지만 사대부집안에서는 그런 예가 없었다는 것을 그간의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2. 2001년에 간행된 『昌原黃氏世譜』에서의 黃度淵에 관한 記事

惠庵 黃度淵과 黃泌秀는 첫째, 19世紀末 20世紀初에 걸쳐서 서울에서 활동한 醫員이며, 둘째, 그 『方藥合編』과 『方藥合編』의 모체가 된 『醫方活套』를 만들어 낸 인물로서 유명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韓國醫學史에 이름을 남긴 인물이다. 그런데도 醫學系統의 資料를 除外하고는 韓國의 近代人物을 다루는 어느 資料에서도 이들 人物을 싣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집안의 族譜에서조차도 그들이 것처럼 名醫로서 업적을 남겼고 것처럼 유익한 醫書를 편찬한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그들의 族譜에는 그들이 벼슬하였다는 사실만이 밝혀져 있다. 즉, 2001년에 간행된 이 집안 족보에서 위 黃度淵을 찾아보면 거기에는 그의 號가 惠庵이었다

는 사실 외에는 그의 업적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즉, 그가 當代의 名醫로서 그처럼 이름이 높았다던가, 또는 『方藥合編』이라는 후세에 이 분야에서 유명하게 되는 책을 편찬하였다던가, 무교동에서 약국을 개업하였다던가 하는 사실에 관해서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그리고 이점은 黃度淵에 이어 역시 儒醫로서 이름이 있었던 아들 泌秀에 관한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黃泌秀의 경우는 그가 振威縣令을 지냈다는 사실만이 밝혀져 있을 뿐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하나만으로도 黃度淵이 名醫로서 활동하였던 그 당시 즉, 19세기 후기만 하여도 그리고 사실은 그 후에 있어서도 상당기간동안 醫員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후세에 남기는 것을 결코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몇 백년의 전통을 이어받은 뿌리깊은 조선조 사회의 풍조였던 것이며 위 족보는 바로 그러한 풍조를 웅변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3. 『松江府志』에서 볼 수 있는 것들

한편, 中國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松江府志』에 대한 記事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그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자 한다. 醫員들이 그들이 소속한 그 地方의 地方誌에 수록된다는 것은 韓國의 경우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점 하나만을 가지고도 兩國間의 차이가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차이가 더욱더 놀랍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松江府志』는 1630년에 간행된 地方誌로, 松江府는 오늘날의 上海地方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中國의 역사상 유명한 학자 및 학자관리가 많이 배출된 곳으로 이름난 곳이다. 이 『松江府志』의 제 42권을 보면은 거기에 『藝術』이라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고 그 아래에

25명의 人物이 收錄되어 있는데 그 중에 16名の 醫員名이 실려있다. 거기에는 그들이 松江地方에서 醫員으로서 어떻게 활동하였던가를, 그들이 그때그때 試圖한 각종 經驗方에 관한 아주 상세한 기록과 함께 실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그 地方 士大夫들로부터 각듯한 존경을 받았으며, 때로는 벼슬도 제공받기도 하였다. 특히 놀라운 것은, 醫員 李肅의 경우이지만 그의 아들 敬이 科擧에 올라 벼슬길에 있다가 末年에는 ‘上海儒學訓導’로 물러 앉았고, 또 肅의 孫子 祥은 天順丁丑進士에 급제하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學者로서 魏文靖公 驥가 肅을 위하여 ‘傳記’를 썼고, 역시 유명한 學者인 錢文通公 溥가 위 敬을 위하여 墓碑文을 써주고 있다. 물론 위 李肅의 例가 하나의 孤立된 경우가 결코 아닌데, 이러한 사실은 朝鮮時代의 韓國에서는 想像도 못할 현상이다.

IV. 결론

이상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말할 수 있다. 첫째는, 中國이 훨씬 開放的이었고 韓國은 閉鎖的이었던 社會임을 알 수 있다. 筆者가 알기로는 中國은 10세기경에 嫡庶의 差別이 없어졌는데, 韓國의 경우는 20세기에야 차별이 지속되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기 이전의 전통시대에는 혈통의 귀천과 직업의 귀천을 너무도 지나치게 가리고 그 바탕위에서 차별을 심하게 밝혔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국과는 아주 다른 점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해독을 끼친 점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러한 불행한 풍토는 20세기 초까지도 그대로 지속된 것 같다. 그 대표적인 예가 『東醫寶鑑』의 著者 許浚이다. 그는 비록 그가 국왕의 특별한 배려로 높은 품계와 높은 관직을 받았지만 바로 그 혈통상의 결점과 직업상

의 분리 때문에 끝내 여러가지 차별대우를 받아야만 하였다. 즉, 그의 집안의 族譜에 그가 庶子라는 사실을 끝까지 표시하였으며 이것은 1911년에 간행된 그의 집안의 족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신라 말기로부터 17세기 중엽까지의 유명한 人物 310여명의 傳記를 수록한 『海東名臣錄』이나 朝鮮 初부터 肅宗 때까지의 人物 2000여명을 수록한 『國朝人物志』등을 보아도 그 어디에도 許浚은 실려 있지 않다. 朝鮮時代 이후로 출현한 각종 人物志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오늘 소개한 殷壽龍이나 黃度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저들이 문자 그대로 名醫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또 귀중한 저술들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집안의 族譜에서조차 그들이 의원이었다는 그

사실조차도 전혀 언급이 없으며 오히려 벼슬하였다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한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고 본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벼슬만이 귀한 직업이요 벼슬한 사람만이 귀한 사람이라는 관념이 아주 뿌리깊게 굳어지고 아주 끈질기게 오래 지속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저들의 족보에 나오는 官職 記事가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들은 물론 벼슬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벼슬하였다는 것보다 의원으로서 남긴 공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전통기 사회에서는 직업관에 있어서의 그러한 개방성은 없었던 것 같다.